

건강칼럼

성장통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골육종

흔하게 '뼈아프'라고 부르는 골육종은 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흔한 암이다. 2015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3년 22만 5,343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육종은 남녀 합쳐 연 1,498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7%를 차지했다.



서은주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영상의학과 과장

▲ 젊은 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육종 팔, 다리, 골반 등 206개의 신체 뼈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골육종은 실제로 주요 증상 부위는 무릎 주변의 뼈이다. 실제 골육종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와 젊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무릎 주위에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퇴골, 경골의 순이었다.

골육종은 다른 장기에 발생한 암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근육, 지방, 신경, 혈관을 침범해 혈액을 통해 전이하며 여러 장기 중 폐 전이가 가장 흔하다. 실제 골육종 증상으로 진단 확정된 전체 환자의 20% 정도는 이미 전이가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골육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이는 10세~25세 사이로 40세 이후에도 발생하는데 주로 방사선 조사, 파제트병, 다발성 골연골종증 등으로 인해 속발성으로 발병된 경우가 많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약 1.5배 정도 많은데 이는 남자의 골 성장 기간이 여자에 비해 다소 길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또 유전성 망막세포종이 있으면 골육종이 더 잘 생기므로 유전적

요인도 발병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로 발생하는 일반 암 발생 원인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대부분 골육종 환자는 뚜렷한 발병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방이 힘들다.

▲ 3주 이상 통증과 부기가 계속된다면 의심해야

골육종에 걸리면 통증과 통증 부위가 붓는 증상이 발생한다. 처음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통증이 느껴지는데 증상이 오래 될수록 통증 시간도 길어지고 강도 역시 심해진다.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지속되며 성장통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운동 중 다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3주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부기가 빠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MRI 등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모든 골육종에서 통증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부기가 오래간다면 골육종을 의심해야 한다.

일반 외상으로 인한 부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만 골육종에 의한 부기는 오래되고 점점 경도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10살 전후로 무릎 주위에 생기는 악성 골육종은 소아정형분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질환이다.

조기 진단을 통해 초기 치료가 이뤄진다고 해도 5년 생존율은 60% 안팎이며, 골육종이 침범한 부분은 절단 또는 부분 절제하고 자기 뼈나 인공관절 등으로 대체해야 하는 등 사지 기능장애도 심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이 아이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유아보다 덜해 조기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 전이가 있을 경우 5년 생존율 20~30%까지 떨어져

골육종이 의심되면 즉시 내원해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X-ray 촬영 이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골주사검사, 종양의 크기와 주위 조직으로 확산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MRI 등을 실시해 골육종을 확진한다. X-ray 촬영만으로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도 있다.

골육종 판정을 받으면 수술 전 항암제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광범위하게 종양절제수술을 진행한다. 하

지만 골육종은 한 번의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꾸준한 항암치료로 온몸의 뼈에 생긴 암을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2차 항암제 치료와 재활을 진행한다.

전체 치료기간은 최소 4~6개월이 걸린다. 이후로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다른 부위로 종양이 전이됐는지 확인을 최소 2년 이상의 추적 기간을 거쳐 살펴본다.

골육종은 전이 여부가 예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전이가 없을 때 5년 생존율은 60~70%, 전이가 있을 때는 20~30%로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인다.

또 발병 부위가 팔·다리일 경우 골반이나 척추보다 예후가 좋다. 골육종 크기가 작거나 암으로 인한 골절이 없는 경우에도 예후가 좋은 편이다.

▲ 부모의 관심이 조기발견에 도움이 돼

골육종은 주로 무릎이나 어깨관절 부에서 발병하고 가벼운 운동 후 통증이 지속되면 점점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강도가 심해진다. 환부 주위의 피부가 붉은 빛으로 변하며 피부가 부어오른다.

뼈 속에서 암이 자라 초기부터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무릎 통증을 호소할 때 단순히 성장통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골육종이 의심될 경우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설

탄소 산업 발전 시키려면 더 분발해야

탄소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더 분발해야겠다. 전북도와 전주시에게 주는 말이다. 탄소산업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전혀 뜻밖의 소식이 들려와 유감이다. 전주시가 두 해에 걸쳐 공들였던 탄소섬유유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유감을 말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의 전북 확대가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다. 경남의 밀양과 사천 쪽은 통과가 됐나 말이다.

정말이지 이러서는 곤란하다.전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더욱 분발해야 한다. 책상 물림이 패서는 안 된다.탄소산업이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라지만 미덥지 않다. 지금 전극을 보자면 광역 시도별로 발전과 낙후의 모습이 뚜렷하다. 이런 모습은 국토의 균형 발전론과 맞지 않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주력 산업으로 탄소산업이 오렌 관심사의 대상인데 정부로부터 찬밥 신세를 받고 있으니 섭섭하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비상한 행보를 보여야겠다. 전북도는 도민의 정서가 어떠한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확연히 비교 구분된지는 오래 됐다. 지금은 충청 지역과 비교해도 한참 뒤쳐져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능력 부족을 이렇게 자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탄소산업이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말한 바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국제탄소소재 특별 개최에 대한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전북도가 탄소복합재 산업의 허브 전북, 새로운 여정을 꿈꾸다'라고 내건 슬로건 그대로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뭘가를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렇게 터덕거리는 모습은 국토 균형발전론에 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현안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만 할 게 아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한다. 탄소산업의 미래를 열려면 더욱 분발해야겠다.

전주 한옥 마을 관광 신기원 기대 한다

가을철 전주 한옥 마을 관광사업에 신기원을 기대한다. 천만 관광객 돌파 말이다. 지금 이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전주 한옥마을이 너무 장사속으로 흐르다보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제 한옥마을의 어두운 부면에도 포커스를 맞추어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 좋은 시절이 지났다는 말이 저변에 나왔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옥마을 숙박업소들이 할인 경쟁으로 난리라는 전주시의 잘못된 지적이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지 3백개 가까운 업소들이 난립하게 한 것은 너무 했다.

전주시는 한옥 마을의 인파를 보고서 관광객 유입 성과에만 취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 연간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자랑할 적인 있는데 그에 공감을 하면서도 개선돼야 할 부면도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개선해야 할 부면을 일러 외면하다가 지금과 같은 난리를 겪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주 한옥마을에 폐업하는 이들이 있고 또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전주시는 이제 한옥마

을의 정체성 회복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의 신기원을 이루려면 이제 뭘가가 달라져야 한다. 장사속 수익도 좋지만 문화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북 전체의 관광사업을 계속 선도해야 하기에 하는 당부이다. 한옥마을은 관광객들의 입소문과 입소문에 의지하여 그 명성을 계속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한옥 마을에 갔더니 이렇게저렇게 안 좋은 점들이 많더라 하는 입소문이 나면 곤란하다. 거리가 너무 혼잡한데다 가격에 비하여 처저된 음식이 형편없다는 말들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에 하는 말이다.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은 중요하다. 정체성은 반드시 정립돼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전통 문화 쪽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본보는 이같은 주문을 여러 번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주문은 앞으로 유효하다. 전주시는 숙박업소들의 출혈 경쟁이 치열한 이유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전주시와 한옥마을 관계자들은 신기원을 이루기 위해 지금 공훈을 얻어야 한다.

독자제언

신뢰받는 경찰을 위한 신독(慎獨)

신독(慎獨)이란 단어를 학창시절 운리시간에 처음 들었던 것 같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것을 말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신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선 자리에서 보람을 느끼며 묵묵히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요즘 현장에서 함께 근무해 보면 대부분의 동료 경찰관은 청렴하고 소박

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업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마음과 이를 공공연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다.

이런 경찰에게 시민의 도움도 중요하다. 술에 취해 행인이나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으며 질 높은 경찰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어폐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한명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부여된 또 다른 신독을 지켜야 할 것이다.

반극선 원신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찰장

독자제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아시나요

범죄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힘든 경우 어디에 상담하고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전국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며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이제 범죄피해자는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연계 지원 등 범죄피해자보호금기 예산을 확보해 도움을 주고 있다.

범죄피해자임시숙소제도란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고, 주거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5일 이내의 숙박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된 숙소로 안내하는 제도다.

전성구 무주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

Large graphic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the text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 beings who give courage and hope). Below the illustration, there is a list of services: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Better newspaper, more loved newspaper, newspaper with readers),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ll staff of Jeonju Maeil are doing their best to produce 'the best newspaper in Jeonbuk'),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For true local self-governance development, we will move away from copying the central paper and deliver more in-depth local news to our readers more quickly and accurately),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To relieve your itching more thoroughly, we are strengthening alternative critical functions and making promises to vigorously turn the wheels of regional development with our improved network). At the bottom right, it says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Human-centered, moral-centered, local-centered Jeonju Maeil).